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은 24만명의 고용창출과 10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대공황 극복전략으로 추진한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처럼 우리도 IMF극복전략으로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주변지역 도로망 등을 종합개발함으로써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은 물론,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 지역 개발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비판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2002년이면 IMF경제를 극복하고 세계의 찬사 속에서 선진대열에 재진입하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단합과 결속하에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2002년 그날 세계의 주지 속에 일본과 대비되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을 멋스럽게 건설하여 2002년 지구축축제의 중심으로,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국력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점을 넓게 해량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배포해 드린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2년 월드컵蹴球開幕式서울開催促求決議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2002년 월드컵축구개막식서울개최축구결의문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총리주관으로 2002년 월드컵지원대책회의를 열어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의 신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보수하는 방안”과 “인천

문학종합경기장 증축방안”에 대하여 투자비용 문제, 개보수의 기술적인 문제, FIFA와의 협의가능성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논의과정중 주경기장으로 인천시 문학경기장이 부상하였다.

이에 1,1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월드컵주경기장 문제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IMF사태를 구실로 월드컵을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단견과 경제논리로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는 이미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국제규격의 구장건설 약속과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를 번복한다는 것은 국제적 신인도에 커다란 손상이 초래됨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명실상부한 국제 도시로서 교통, 숙박, 관광, 보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여건에서 단연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88서울올림픽, 86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를 훌륭히 수행한 경험과 금번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위하여 꾸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으므로 월드컵의 성공적 수행은 어느 지방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선진의국과는 달리 지방 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서울에 주요 기반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형태인 우리 나라의 경우 서울에서 월드컵대회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합의까지 해 놓고 번복하여 월드컵 개막식 개최도시까지 반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다음주에 결정하게 될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확정문제는 단순히 일과성으로 치르는 스포츠행사의 관점에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착실히 준비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한국민의 저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경제력의 재건을 확인시켜 주는 시험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려야 할 작금의 시점에

서 정부는 1,100만 수도권 서울 시민의 소리없는 주문을 외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는 추후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고,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선정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4.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議長 文一權 방금 崔鍾德議員으로부터 신상 발인신청이 있었습니다. 崔鍾德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德議員 윤리위원장 맡고 있는 崔鍾德議員입니다.

우리가 아침 10시에 내무위원회실에서 윤리위원 여섯 분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梁敬淑議員 징계문제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梁敬淑議員께서 여기 나와서 사과발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난 그렇게 해 줄 줄 알았더니 梁議員이 그냥 가방을 싸서 가버렸는데, 정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도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나이도 젊은 의원이 나이먹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그만큼 얘기하고, 그만큼 우리는 화해를 붙이고,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꼭 어떤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보다 같은 동료의원끼리 화해차원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딱 하니 그냥 간다 온다 말 없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니 신문 보도대로 梁議員이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서로 동료의원끼리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의당히 나와서 보도상에 서너번 보도되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동료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그 얘기 한 마디 간단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보따리 싸서 가버렸습니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원생활을 7년 동안 하면서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제1호입니다. 이렇게 하

는 것을 보고 내 오늘에서 그것을 깨닫겠어요. 교통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하나, 이것을 내가 오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梁議員이 나이는 젊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묵살하고 가 버렸어. 그랬을 적에 윤리위원이고 뭐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의원이니까 따질 것은 없지만 부모 같은 사람도 거기 몇이 있는데…….

뭐라고요?

(「다시 안건 상정하자고요」하는 의원 있음)

(「재심의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내 여기 코미디하러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부모 같은 사람들이 의원직을 떠나서 그렇게 내가 무수히 얘기를 했고,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안 노는 것이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梁議員한테 충고도 했고 오늘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여성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나는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 나갔더니 교통위원들한테 나만 개잡듯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회기가 많이 남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문에 오늘까지 4번이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윤리위원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박수 좀 한번 쳐 주시고 안 맞다면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일동 박수)

이상입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회기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사직하였음에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현장확